

한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아래는 한글이 만들어질 때부터 현재까지의 일어난 일입니다. 다음의 글을 시간의 순서에 맞게 차례대로 정리하세요,
 - 가. 1443 년 겨울, 한글이 발표되었다.
 - 나. 한글이 만들어지고, 3 년 후인 1446 년 한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용법을 담은 ‘훈민정음’이 발표되었다.
 - 다.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한국 사람들은 중국의 한자를 글자로 사용했지만, 한국의 말은 중국의 한자와는 잘 맞지 않았다.
 - 라. 말과 다른 글자를 배우기 힘들었던 백성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던 세종대왕은 몸이 약해져 여러가지 병을 얻은 후에도 마지막 남은 힘을 한글을 만드는데 쏟았다.
 - 마. 한글은 만들어지고 나서도 3 년 동안 실제 사용이 가능한 지 여부를 실험해 보고 불편함이 없는지 조사하는 과정을 거쳤다.
 - 바. 세계의 언어학자들은 한글의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글자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 사. 주시경 선생은 훈민정음에 한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한글 연구와 교육에 힘써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만 사용하는 글이라고 무시당하던 한글을 널리 보급했다.
 - 아. 이제 한글은 말은 있으나 글자가 없는 소수민족의 문자로 사용되기도 하고 더 많은 민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자. 달라진 한국의 위상과 한류의 영향으로 많은 세계인들이 한국어 배우기에 열정을 쏟고 있다.
 - 차. 우리의 말과 글의 사용이 공식적으로 금지됐던 일제강점기에도 조선어 학회를 비롯한 학자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 카. 1894 년 갑오개혁으로 훈민정음은 ‘국문’ 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조선의 공식 문자가 되었다.
 - 타. 1989 년부터 전 세계 문맹 해결을 위해 노력한 개인, 단체에게 유네스코는 매년 세종대왕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억하며 ‘세종대왕 문해상’을 시상한다.

1-03 이야기해 보요



메이

수안

메이: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친구 메이~~예요~~.

수안: 아, 메이 씨. 안녕하세요? 저는 수안~~이에요~~.
반가워요.

메이: 수안 씨, 전화번호가 뭐~~예요~~?

수안: 010-1234-7986~~이에요~~.

메이 씨 전화번호는요?

메이: 제 전화번호는 010-2082-9294~~예요~~.

수안: 010-2082-9293, 맞아요?

메이: 9293이 ~~아니예요~~. 9294~~예요~~.

수안: 네, 고마워요.

새 어휘/표현

모음+ 예요

자음+ 이에요

1-03 이야기해 보요(활용)

민준: 안녕? 나 영걸이 친구 민준~~이야~~.

같이 수업 듣게 되서 반가워.

영민: 안녕? 나도 반갑다.

영걸이한테서 네 이야기 많이 들었어.

민준: 그래? 전화번호 좀 알려 줄 수 있어?

영민: 그럼. 508-432-6482~~야~~.

민준: 508-432-6481, 맞아?

영민: 아니. 508-432-6482~~야~~. 네 전화번호는?

민준: 617-460-9984~~야~~.

영민: 617-460-9983이라고?

민준: 아니. 9983이 아니라 9984~~야~~.

새 어휘/표현

* 모음 + 야

* 자음 + 이야

문형/ 문법

- ~는 바람에: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로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표현(부정적)
-주로 동사 형태에 '~는'을 붙여 쓴다.
가는 바람에, 오는 바람에, 먹는 바람에, 뛰는 바람에.....

예문 1) 교통사고 때문에 학교에 늦었어요.

→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학교에 늦었어요.

예문 2) 비가 와서 옷이 젖었어요.

→ 비가 오는 바람에 옷이 젖었어요.

- 다음 문장에 '~는 바람에' 를 넣어 바꿔보세요.

1. 눈이 갑자기 내려서 교통이 엉망이에요.

→

2. 스쿨 버스 안에서 다른 생각을 했다. 그래서 우산을 놓고 내렸다.

→

3. 위 층에서 너무 떠들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

4. 차량이 급속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

5. 어머니가 갑자기 우셨다. 그래서 나도 따라 울었다.

→

- 얼마나 ~ 하는지: 어떤 상황의 원인을 강하게 표현
 - 동사(verb) 뒤에는 '얼마나 ~ 하는지'
<예> 얼마나 뛰는지, 얼마나 자는지, 얼마나 떠드는지....
 - 형용사(adjective) 뒤에는 주로 '얼마나 ~(으)니 지 모른다'의 형태로 쓰인다.
<예> 얼마나 예쁜지 모른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얼마나 착한지 모른다, 얼마나 딱딱한지 모른다.....

예문 1) 아이가 많이 아파서 밥을 못 먹어요.

= 아이가 얼마나 아픈지 밥을 못 먹어요.

예문 2) 아이들이 너무 떠들어서 공부를 할 수 없어요.

= 아이들이 얼마나 떠드는지 공부를 할 수 없어요.

- 다음 문장에 '얼마나 ~한지' 를 넣어 문장을 바꿔보세요.

1. 바닷물이 너무 차서 들어갈 수 없었어요.

→

2. 위층에서 너무 시끄럽게 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

→

3. 올 여름은 너무 더워서 에어컨도 소용이 없다.

→

4. 그 친구는 너무 고집이 세서 아무 말도 듣질 않아.

→

5. 너무 많이 웃었더니 배가 다 아프네.

→ -----

- () 안의 형용사를 활용하여 '얼마나 ~(으)ㄴ지 모른다' 형태의 문장을 완성 하세요.

1. 소희는 지하철역 계단에서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를 도와드렸다. (친절하다)

→ -----

2. 엄마가 이모 결혼식에 사용할 부케를 만드셨다. (예쁘다)

→ -----

3. 친구와 유명한 빵집에 가서 케익을 먹었다. (맛있다)

→ -----

4. 이 더운 날씨에 밖에서 체육 수업을 하다니. (화나다)

→ -----

5. 동생이 내 대신 방 청소를 했다. (고맙다)

→ -----

룰/을

한자어 단어 중 마지막 글자가 '룰'로 끝나는 경우,
앞 글자가 모음이거나 'ㄴ' 받침일 때에 '을' 로 적는다.
즉 대부분은 '룰' 로 적고,
모음 이나 'ㄴ' 으로 끝나면 '을' 로 적는다

● 알맞은 표기를 고르세요.

비율 / 비룰
증가룰 / 증가을
사고을 / 사고룰
할인을 / 할인룰
출생룰 / 출생을
법을 / 법률
진학을 / 진학룰
출석을 / 출석룰

● 다음 빈 칸에 알맞은 말을 위의 표기에서 고르시오.

1. 저 가게 보다 이 가게가 () 이 더 높다
2. 한국은 요즘 () 이 낮아지고 있다.
3. 한국은 고등학교 학생의 대학 ()이 80% 이상이다.
4. 맑은 날보다 비 오는 날의 교통 ()이 더 높다.
5. 한국반은 오늘 연휴의 영향으로 ()이 낮다.

● 속담과 그 내용이 일치하도록 선을 연결하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작은 것이라도 모이면 큰 것이 된다는 뜻

숫아날 구멍이 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

무엇을 잘못해 놓고도 여러 가지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

콩 심은 데 콩 나고

아무리 큰 재난에 부딪히더라도 그것에서 벗어날 길은 있다는 뜻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늘의 별 따기

지극히 어려운 일을 두고 하는 말.

티끌 모아 태산

모든 일은 원인에 따라 결과가 생긴다는 말

● 밑 줄에 들어 갈 알맞은 속담을 고르세요.

1. 'Tiny drops make the ocean.' 의 우리말 속담은?

2. 한국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 가기가 _____이다.

3. 가: 한 달 동안 4Kg 이나 몸무게가 늘었어요.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인가 봐요.

나: _____ 더니....

4. 가: 너무 힘든데 아무도 도와 줄 사람이 없어요.

나: _____라고 하잖아요. 힘내세요!

- 다음의 그림을 보고 이미지에 알맞은 속담을 쓰세요. (수업자료)



耳	目	口	鼻	身
귀 이	눈 목	입 구	코 비	몸 신

● 다음 문장 중 한자어의 우리말 소리를 쓰세요.

1. 11月 13日에 있을 '韓國學校 학부모 초청 공개수업'에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耳目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 귀에 통증이 있어 耳鼻咽(인)喉 (후)과에 예약을 했습니다.
3. 鼻炎(염)과 中耳炎 심해서 耳鼻咽喉과에 가야합니다.

*종합병원의 여러 과를 알아보시다.--> 한국반 단어장

4. 耳目口鼻가 시원하게 잘 생겼다.

5. 入口 vs 出口, 出入口

6. 心身이 건강해야 합니다.

7. 우리가 韓國學校에 다니는 目的은 韓國文化와 韓國語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8. 2020-2021 한국반의 目標는 무엇인가요?

9. 앞에서 발표하고 있는 사람에게 注目하세요.

한국반	TV 문학관 ‘소나기’: 보기 전 단어학습
-----	-------------------------

	갑자기 내리는 비
	남편이 없는 여자가 다시 결혼을 하는 것
	소가 먹는 풀
	소가 먹는 죽
	반 학생들이 한 주 쉼 돌아가며 학교와 교실 청소를 하는 일
	학교를 옮김
	약으로 쓰이는 풀
	글씨가 엉망인 상태, 표준어는 괴발개발 이나 많이 잘 못 사용 됨
	남자와 여자가 잘 어울린다는 뜻
	학생들과 부모님이 한데 모여 운동 및 게임을 하는 학교 행사
	한 해 농사가 잘 된 해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음
	나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
	5 일 마다 시장이 열리는 날
	가을에 농작물들을 거두는 일
	가을에 얻은 농작물을 파는 것
	얇은 껍나 속임수
	망할 징조
	오랫동안 집안에 전해져 온
	집안의 가장 큰 어른(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 집

<보기>

장날 상전 소작 소나기 개가 소꼴 전학 쇠죽 주변
 게발새발 운동회 천생연분 풍년 망조 가을걷이 꿈수 추곡수매 종가 집
 대대손손 약초

가족구성원의 호칭

